Beautiful Roads in Korea 2002

건설교통부
www.moct.go.kr

아름다운 도로 Beautiful Roads in Korea 2002

건설교통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Beautiful Roads in Korea 2002

아름다운 도로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빠른 도로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길의 목표입니다.

건설교통부
www.moct.go.kr

우리의 삶과 꿈이 담긴, 아름다운 도로

01번 제1회 아름다운 도로 선정 행사에 응모하여 주신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청, 도로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을 안으신 수상자와 지역 주민께도 축하드립니다.

최근,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家口)는 전체의 60%에 이르러 이제 자동차와 도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수단과 시설이 되었습니다. 도로는 사람과 물건의 통행 공간이자 환경과 방재의 공간, 각종 공공시설의 수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는 국민 가까이 있는 일상의 시설이자 국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므로 정부는 7월 7일을 도로의 날로 정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도로는 빠른 발전을 이루었으나 오랜 기간 도로 인프라를 축적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도로 시설의 확충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지혜롭게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도로는 영구적인 국토와 도시의 골격이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도로의 질(質)을 높여 정주 체계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길이란 그 사회를 나타내고 문명을 나타낸다"라고 잉카와 고대 로마제국의 도로망 연구를 주관한 독일의 빅토르 볼프강 폰 하겐(Victor Wolfgang von Hagen)이 말했듯이, 우수한 경관과 품격을 갖춘 도로는 국가와 도시의 얼굴이며 문화자산입니다. 아름다움과 신뢰감,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가로(街路)와 도로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합의와 노력을 모을 때입니다. 안전함과 편안함에서 비롯되는 여유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설계 기준과 시공 기술, 경관(Roadscape)에 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명제를 이용자와 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도되었습니다. 한적한 오솔길, 친숙한 골목길과 광장, 산허리와 강변의 도로, 힘찬 고속도로에서 길의 의미와 소중함을 함께 발견하고자 '아름다운 도로'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무심코 이용해 온 좁은 길에도 다양한 모습과 철학이 담겨 있어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 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이 책자가 도로는 물론 국토환경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자는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제2회, 제3회 행사가 더욱 충실히 엮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2월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남인희

Contents

Beautiful Roads in Korea 2002

아름다운 한국의 도로... 이 책은 아름다운 꿈과 작은 나눔이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2 **프롤로그** I 발간에 즈음하여 I

6 **길 이야기**
I 인간의 삶과 도로 I 옛 길, 그리고 오늘의 길 I 미래의 도로 I

12 **아름다운 도로**

14 I 수상작 I
- 억새꽃과 삼나무 숲이 아름다운 도로
- 산과 물이 어우러진 호반 속의 도로
- 푸른 바다 위 구름다리
- 내장산 오색 단풍길
- 바다 위에 세운 건설 미학
-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도로
-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길
- 문화가 있는 벚꽃 길
- 한강 위의 비상(飛上)
- 지나치기에 아까운 장회재 구간
- 아름다운 샘골다리
- 바람과 계곡의 교차로

38 I 선외가작 I
- 사계(四季)가 있는 가로수
- 과거와 현대의 만남
- 숲과 물이 있는 AG 상징가로
- 가로수길의 사계(四季)
- 걷고 싶은 거리
- 태고적 신비
- 세계로(世界路), 미래로(未來路)
- 바다 위를 달리는 해상교량
- 신비로움을 향한 문등(門燈)
- 하늘에 닿는 길
- 친환경적인 한강의 물갓도로

49 **부록**
I 도로의 또 다른 얼굴 I 도로의 개요 I
I 「아름다운 도로」 출품작 I

59 **에필로그** I 책을 마치며 I

Beautiful Roads

in Korea 2002

길 이야기

오늘도 무심코 길을 지납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꿈이 묻어나는 길은,
지나치는 곳이지만 머무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사랑하는 삶….
길은, 스스로 조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길(순천만)

| 인간의 삶과 도로 | 옛 길, 그리고 오늘의 길 | 미래의 도로 |

인간의 삶과 도로

도로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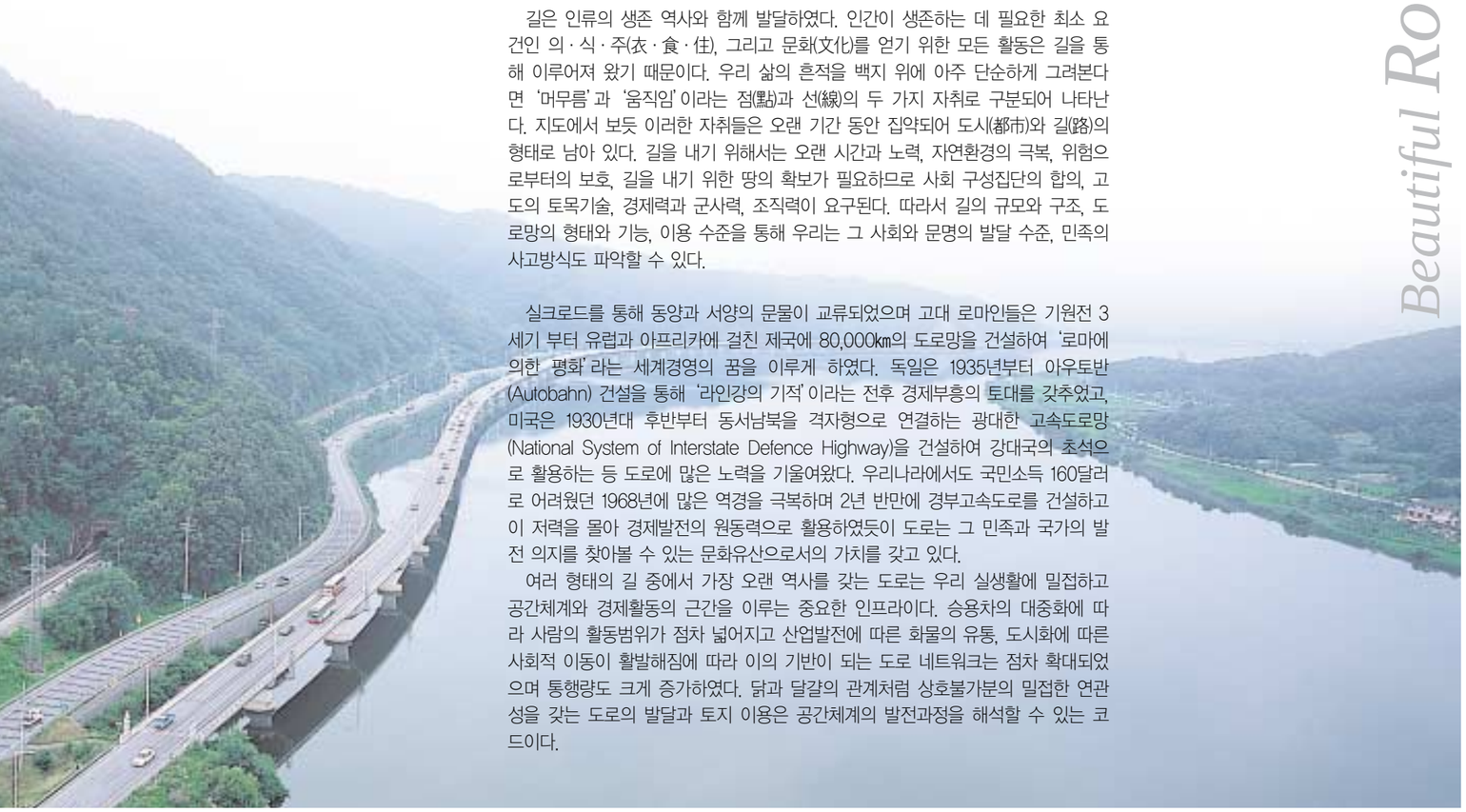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길을 만든다. 인간들은 멀리 있는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길을 만든다. 땅 위에도 만들고 땅 속에도 만든다. 하늘에도 만들고 바다에도 만든다. 그러나 인간들은 본디 자신들이 어느 길로 왔으며,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자어로는 그 길을 도(道)라고 표기하며 개개인의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설파되어 왔다.' (이외수, '감성사전' 中에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길'이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일정한 너비로 길게 나 있는 공간, 혹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사용하는 정해진 공간을 말하며, 그중 도로(道路)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땅 위에 만든 교통 용도의 비교적 큰길을 말한다.

길은 인류의 생존 역사와 함께 발달하였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요건인 의 · 식 · 주(衣 · 食 · 住), 그리고 문화(文化)를 얻기 위한 모든 활동은 길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흔적을 백지 위에 아주 단순하게 그려본다면 '머무름'과 '움직임'이라는 점(點)과 선(線)의 두 가지 자취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지도에서 보듯 이러한 자취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집약되어 도시(都市)와 길(路)의 형태로 남아 있다. 길을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 자연환경의 극복,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길을 내기 위한 땅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사회 구성집단의 합의, 고도의 토목기술, 경제력과 군사력, 조직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길의 규모와 구조, 도로망의 형태와 기능, 이용 수준을 통해 우리는 그 사회와 문명의 발달 수준, 민족의 사고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류되었으며 고대 로마인들은 기원전 3세기 부터 유럽과 아프리카에 걸친 제국에 80,000㎞의 도로망을 건설하여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세계경영의 꿈을 이루게 하였다. 독일은 1935년부터 아우토반(Autobahn) 건설을 통해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전후 경제부흥의 토대를 갖추었고, 미국은 1930년대 후반부터 동서남북을 격자형으로 연결하는 광대한 고속도로망(National System of Interstate Defence Highway)을 건설하여 강대국의 초석으로 활용하는 등 도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 160달러로 어려웠던 1968년에 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2년 반만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 저력을 몰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였듯이 도로는 그 민족과 국가의 발전 의지를 찾아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여러 형태의 길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도로는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고 공간체계와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승용차의 대중화에 따라 사람의 활동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산업발전에 따른 화물의 유통,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의 기반이 되는 도로 네트워크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통행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상호불가분의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도로의 발달과 토지 이용은 공간체계의 발전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이다.



도로의 기능과 종류

기본적으로 도로는 교통공간으로 이용된다. 또한 통행 목적에 따라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연결할 뿐 아니라 도시 · 지역 · 국가 간의 공간 단위를 상호 연결한다. 도로는 자동차 외에 보행자와 자전거, 우마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통합 수단이며 도시지역에서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구획하고 토지이용을 활성화하는 공간 계획적 장치(Spatial Planning Tool)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경관 · 녹지 · 대기 및 물의 흐름을 위한 환경 공간, 화재 · 지진 시의 방재 공간, 전기 · 통신 · 가스 · 상하수도 · 지하철 등 공공시설 공간, 각종 집회와 행사가 열리는 문화 휴식 공간, 각종 정보의 전달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도로는 이동성(Mo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등 기능과 공간적 위계에 따라 그 종류와 등급이 규정되어 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의 도로는 통행자가 최종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성 위주의 도로로 건설되며, 지역이나 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여객과 화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중심의 이동성에 초점을 둔다.

옛 길, 그리고 오늘의 길

옛 길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길은 처음 한반도로 이동해 들어온 민족의 이동경로와 정착단계에서의 길을 생각할 수 있다. 민족의 이동통로 및 중국 대륙과의 연결로가 간선을 이루고 대동강과 요하 유역의 고조선, 만주와 한반도 일대의 삼한 78개국, 부여, 고구려, 옥저 등 정착집단 간 교류통로가 지선을 이루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는 중앙조직을 갖추고 지방통치, 외적의 침입방지, 문물의 교류를 위해 교통 통신로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고구려-신라 간 연결로 중 소백산지의 계립령(鷄立嶺, 156년)과 죽령(竹嶺, 158년)등 영로(嶺路)는 우리나라 도로 연대표 중 가장 먼저 개척된 도로이다. 도로를 이용한 교통 통신을 체계화한 신라의 우역제(郵驛制)에 대한 내용은 신라 삼국사기(487년)에 우역의 설치와 관도(官道)의 수리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통일신라에는 육상교통의 담당 부서인 승부(乘府)를 설치하여 교통망이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도로는 역로(驛路)로 대표된다. 충청주도(34역), 전공주도(21역) 등 22역도(驛道) 525역(驛)은 전국의 주요 지점을 연결한 전국적인 간선도로망이다. 고려시대 도로망은 개경을 중심으로 서북-동남, 동북-서남의 X자형을 이루고 있다. 역제의 정비에 따라 도로변의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면서 국가 지배력이 커지게 되었다. 지방통제를 위한 도로망의 정비는 역참(驛站)에 의해 형성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행정 지휘, 군사 통신, 외교 등 관로(官路)와 군용도로의 성격이 강했으며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의주로 · 영남로 같은 도로는 경제 · 문화적 기능도 담당하였

Beautiful Roads *in Korea*

다. 조선시대 후기의 간선도로망은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의 제1로(돈의문–의주 1,080리), 남쪽의 제4로(숭례문–부산 960리) 등 9개의 대로(大路)가 한양을 중심으로 각 지방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며 방사형으로 발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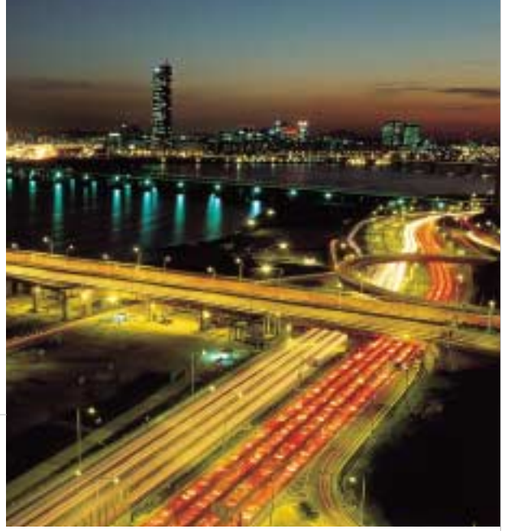
1906년 최초의 치도(治道) 계획인 7개년 도로개수계획이 시행되었다. 이때 신설 · 개수된 도로를 신작로라고 불렀는데, 종래의 사람이나 우마차가 아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의미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많은 도로가 건설되었는데, 신작로 1호가 양곡을 항구로 반출하기 위한 전주–군산 간 도로라는 점을 볼 때, 대륙진출의 교두보, 본국과의 연락을 위한 항구 연결 도로 등 경제적 수탈을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루었다. 일제는 토지조사 과정에서 조선시대 역 관리를 위해 운영했던 역둔토의 농지를 수탈하였는데, 그 가액은 토지조사비의 2배가 넘는다.

오늘의 도로

그간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시작한 경제개발 과정을 통해 도로 부문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1950년대까지 지역 간 통행은 철도가 주된 교통수단이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수출지원을 위한 임해공단 연결과 자동차 보급에 따른 도로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전국 주요 산업시설과 도시가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높은 설계기준을 갖춘 고속도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된다.

연대별 도로 개발의 특징을 보면, 1960년대에는 고도 경제성장 기반 도로망 구축, 1970년대에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골격 도로망, 1980년대에는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 1990년대에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확충과 교통 애로 해소, 2000년대에는 교통 효율의 극대화 및 지역 균형개발 촉진이 기조를 이룬다.

최근 40년 간 우리나라의 도로 투자 방향은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낙후지역 개발, 국토의 균형발전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지역 간 도로의 투자 문제는 경제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요구하는 수송력 증대와 도로시설 정비에 기조를 두며 다루어져 오다가 자동차 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도로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효율적인 종합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국간선도로망계획(1992), 도로정비기본계획(1998) 등 장기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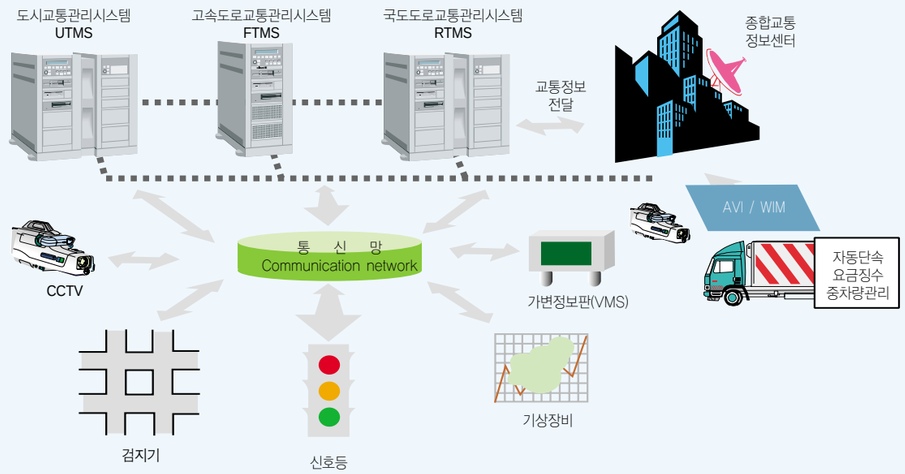
정보화 · 지능화 · 친환경적인 미래의 도로

21세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도로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선진사회 진입에 따른 국민생활의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여가시간의 확대, 교통약자의 보호,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 친환경적인 도로, 교통안전의 추구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고조 및 도로와 자동차 기술 발달로 도로의 고속성 · 안전성 · 편리성 · 저공해성을 추구하고, 도로 · 자동차 ·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개발과 실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도로 이용자와 관리자에게 원활한 교통 흐름, 교통정보 제공, 최적경로 안내, 사고위험 경고, 무인운전, 화물운송 업무 최적화, 통행료 자동징수, 과적차량 단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등 국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교류의 확대가 예상되어 선진 · 개방형의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 국제 도로망도 대비가 필요하다. 2002년 말 현재, 한반도 인구는 약 7천만이지만 동북아의 교차로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특성과 통일독일의 예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중국 · 러시아 인접지역을 포함한 약 1억 명의 인구와 물동량 처리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앞으로 도로의 건설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도로는 국가의 중요한 발전 원동력이므로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로의 양적 확충도 중요하지만, 향상된 국민의 생활과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질 높은 도로를 만들기 위한 도로 계획과 관리도 필요하다.

현대적인 도로개발 역사가 반세기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도로 수준은 수세기에 걸쳐 도로 인프라가 축적된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일본과 스위스의 1/4 수준이며 자동차 보급율은 선진국의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도로 투자가 요구된다. 이제껏 도로는 주로 사람과 물건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해 도로의 양적인 부족 문제, 질적인 수준 제고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번 건설된 도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되며 공간형성의 주요 요소이자 개인에게는 집 못지 않은 활동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로의 안전성 · 쾌적성 등 질적 측면, 주변환경과 정주체계와의 조화, 경관 등을 포함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첨단교통관리체계의 구성도



Beautiful Roads in Korea 2002

아름다운 도로

존구자명(存久自明)…
있음, 즉 존재란 오래되면 스스로 밝아지는 법
길이 그러한가 봅니다
아름다운 도로의 모습들….
길이 있어 그곳이 아름답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도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 수상작 |

억새꽃과 삼나무 숲이 아름다운 도로	산과 물이 어우러진 호반 속의 도로	푸른 바다 위 구름다리
내장산 오색 단풍길	바다 위에 세운 건설 미학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도로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길	문화가 있는 벚꽃 길	한강 위의 비상(飛上)
지나치기에 아까운 장회재 구간	아름다운 샘골다리	바람과 계곡의 교차로

아름다운 도로 | 선외가작 |

억새꽃과 삼나무 숲이 아름다운 도로

「아름다운 도로」 – 대상(大賞)

입구에서부터 도열하듯 쭉쭉 뻗은 울창한 삼나무 숲과 이를 에워싸듯 은빛 물결 출렁이는 억새밭. '억새꽃과 삼나무 숲이 아름다운 도로'는 해발 200~300m 고지의 제주시 봉개동에서 북제주군 평대리까지 늘어 선, 멋들어진 숲길이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빼곡한 삼나무로 인해,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한밤중처럼 깜깜하기만 하다. 삼나무 숲길이라는 이정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울창한 삼나무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 차를 세우면, 그곳이 바로 삼나무 숲일 것이다.

이 도로에는 매력 두 가지가 숨어 있다. 하나는 외국의 숲 속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이국적인 정취를 풍기며 하늘 높이 치솟은 삼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광활한 야산 초지에 넘실대며 제주의 고유한 멋을 담아내고 있는 은백색의 억새꽃이다. 햇살 가득한 날이면, 드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우마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곳은 1960년 건설 당시, 제주 축산업 진흥을 위해 12㎞의 동부축산관광도로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1979년 27.3㎞로 연장되었다. 그 후 1995년, 지방도 재정비를 통해 비자림로로 도로명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주 출신의 월드컵 스타 최진철이 시원스럽게 달리던 자동차 광고도 바로 이 도로에서 촬영되었다. 녹음 짙은 이 숲 속은 이동 차량이 많지 않으므로 산책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영화 '단적비연수'의 배경지로도 유명한 이곳 삼나무 숲에서,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영화의 감흥을 다시 한 번 느껴보는 건 어떨는지….

Focus

울창한 삼나무 숲 사이로 좁은 듯이 보이는 왕복 2차로의 제주 비자림로는 태고적 자연이 잘 보존된 아름다운 길이다. 드넓은 도로, 웅장한 도로가 아닌 우리에게 친숙하게 와 닿는 길. 이러한 모습이 영원히 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치 :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북제주군 평대리 / 노선번호 : 지방도 1112호선
준공일자 : 1996년 2월 2일 / 도로관리청 : 제주도청

주변 볼거리 >> >

▶비자림

예로부터 비자나무는 재질이 좋아 고급 가구나 바둑판 재료 등에 널리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인 비자는 구충제로도 쓰였다고 한다.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비자림은 300~800년생 비자나무 200여 그루가 밀집되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미니월드

국내 최초의 테마형 어드벤처 미니월드. 이곳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미국, 남미대륙까지 세계의 주요 볼거리를 실물과 똑같은 모양으로 꾸며놓았다. 전 세계 볼거리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지구촌 미니어처의 집합체로 제주의 기존 관광지들과는 차별화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산굼부리 분화구

이곳은 영화 '연풍연가'에서 남녀 주인공이 나란히 걷던 곳이다. 산굼부리는 천연기념물 제263호로 둘레 2㎞가 넘는 거대한 화구이다. 또한 평지 분화구로서 난대성, 온대성, 고산식물 등 40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찾아가는 길 >> >

제주공항→제주시 8호 광장(교차로)에서 우회전→서귀포 방면 국도 11호선→20㎞ 지점에서 좌회전→비자림로 시점

Tip

:: 제주의 억새꽃 잔치

한라산 허리를 감싸고 한껏 가을 분위기를 내고 있는 억새꽃. 그 억새꽃이 너풀대는 가을 들녘에서 매년 10월 중순경이면 '제주억새꽃잔치'가 열린다. 길트기공연을 시작으로 트래킹, 그림그리기대회, 관광객 퀴즈왕전, 가요제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기간에는 제주관광산업고교와 제주대 정문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호반 속의 도로

「아름다운 도로」 – 최우수상

용담대교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의 양수리 들판을 가로질러 확 트인 전망을 감상하며 달리다 보면, 산과 물이 어우러진 팔당호수의 물갓길을 만날 수 있다.

물 위를 달리는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호반 속의 이 도로는 물안개라도 피어오르는 날이면 더욱 낭만적인 드라이브 코스가 된다. 상쾌한 주행감은 마음을 금세 사로잡으며, 매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므로 사계절 풍경이 가히 환상적이다.

주변에 위치한 수종사에서 유명산을 바라보면, 마치 연봉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해 눈이 더욱 즐겁다.

처음에 용담대교는 기존의 국도 6호선 확장을 위해 계획되었으나, 많은 절개지 발생과 팔당호의 매립 등이 예상되어 기존의 2차선은 상행선으로 이용하되, 2차선 도로를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교량에 국내 최초로 무도장 공법을 시도했기 때문에 건설 당시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용담대교는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 교량 아래 호반의 경치를 관망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도로보다 높게 만들어졌다.

용담리는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이 마을의 연못에서 놀다가 올라가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양수리는 예전에 두물머리, 두머리, 두거리, 양수라고 불렸으나,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양수리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팔당댐에서 양수리 방향으로는 손바닥을 편 듯 점점이 떠 있는 섬들과 밤나무 숲, 강변을 따라 걷는 자갈길의 운치가 빼어나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Focus

주위 산과 물의 조화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선형을 이루고, 무도장 공법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용담대교는 가히 친환경적인 도로이다. 탁 트인 전망과 함께 팔당호수 위를 상쾌하게 떠서 달리는 듯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길이다.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 노선번호 : 국도 6호선
준공일자 : 1996년 12월 3일 / 도로관리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변 볼거리 >> >

▶다산 정약용 묘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 커다란 물줄기를 이룬 곳이 팔당호이다. 그 물이 바라다보이는 언덕에 조선시대의 실학자이며 선구자였던 다산 선생의 생가와 묘가 있다. 묘 앞에는 상석과 비석이 서 있으며, 묘역 주변은 공원처럼 잘 다듬어져 있어 그의 드높은 정신을 기리는 참배객들과 호수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청평유원지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룬 청평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청평유원지는 서울에서 불과 50㎞ 떨어진 곳이라 당일 코스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호수 북쪽의 페리 선착장에서는 유람선이 운항되는데 북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뱃길의 운치가 매력적이다. 이외에도 수상스키를 비롯한 각종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숙박시설이 완비돼 있어 사계절 휴양지로 유명하다.

찾아가는 길 >> >

▶강북 도농삼거리에서 우회전→덕소→팔당댐→신양수대교
▶강남 올림픽대로→미사리→팔당대교→신양수대교 도착

Tip

:: 드라이브 길의 즐거움

국도 6호선을 따라 맛있는 음식점과 카페들이 즐비하며, 산채나물, 민물매운탕 등이 유명하다. 특히 용문산 깊은 골짜기에서 채취한 천연 산나물을 이용한 산채비빔밥은 맛이 일품이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카페는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푸른 바다 위 구름다리

「아름다운 도로」 – 최우수상

서해대교

노을과 바다, 그리고 서해대교. 아산만의 넓은 바다 위에 구름다리처럼 웅장하게 펼쳐진 서해대교는 노을과 조화를 이뤄 멋들어진 경관을 연출한다.

서해대교는 동북아 물류 수송의 중심인 서해안의 관문으로, 아산만을 가로질러 경기도와 충청도를 연결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서울~목포 간 주행 시간을 단축시켰다. 사장교와 FCM교 및 PSM교의 복합 형식으로 지어진 이 교량은 주탑의 높이가 무려 60층 건물 높이인 182m이며, 총 연장 7,310m, 폭 31.4m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국내 자본과 기술로 건설되어 국내 토목기술의 향상은 물론,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아산시에는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모신 현충사와 조선시대 맹사성의 고택이 자리잡고 있으며, 영인산 휴양림이 있어 일상에 지친 몸을 쉬게 해 준다. 새로 생긴 아산온천은 서해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서울에서도 한두 시간이면 도착하므로 당일 온천욕이 가능하다.

큰 어금니 모양의 산이라는 뜻을 지닌 아산만은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가르는 경계로, 조수간만의 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이곳은 예로부터 날씨가 청명하고 강우량이 적어 간척지와 염전이 많다. 또한 서해안의 유명 해수욕장들은 동해안과는 또 다른 멋으로 많은 관광객을 매혹시킨다.

안성천 하구를 막아 만든 아산방조제는 평택시와 아산시를 연결해 주며, 아산호수는 삽교호와 더불어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 임진왜란 당시 신통력을 발휘해 왜선을 물리쳤다는 전설의 영웅바위도 볼 수 있다.

Focus

1993년 11월에 착공하여 7년여의 대 역사 끝에 2000년 11월 개통한 서해대교는 연장 7,310m로 국내 최대 규모의 교량이다. 한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주탑은 사찰의 당간지주의 형상으로 구현되어 한국적 조형미가 물씬 풍긴다.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노선번호 : 고속국도 15호선 / 준공일자 : 2000년 11월 10일
도로관리청 : 한국도로공사 서해대교관리소

주변 볼거리 >> >

▶외암리 민속마을

외암리 민속마을은 아산시와 천안시 경계인 광덕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가구 수는 86호이며 대부분이 초가지붕의 정겨운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마을 어귀의 장승을 비롯해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디딜방아, 연자방아, 물레방아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석조약사여래입상 등 많은 민속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온양민속박물관

충남 아산시 권곡동에 위치한 온양민속박물관은 2만2천평의 대지 위에 건립된 국내 최대의 민속박물관이다. 우리의 얼과 사상을 담은 역사 깊은 곳으로 옛 선조들의 구체적 생활양식과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 · 전시하여 후세들에게 전하고자 설립된 곳이다.

찾아가는 길 >> >

서해안고속도로(목포 방향)→서평택 I.C→서해대교

Tip

:: 서해안의 싱싱한 해산물

서해안 지역은 꽃게와 우럭, 낙지, 조개, 굴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 특히 갓 잡아 올린 암꽃게를 숙성시킨 게장이 유명하다.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구이, 굵은 소금 위에서 구워낸 맛있는 왕새우, 장어구이, 조개구이는 별미 중의 별미다.

내장산 오색 단풍길

「아름다운 도로」 – 우수상

색(色)을 거두고 어찌 가을을 말할 수 있으랴.

해마다 가을이면 온 산야가 붉게 타오르는 내장산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단풍 관광 일번지이다. 내장산은 '호남의 금강산'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명산으로서, 197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봄에는 신록,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으로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인다. 그 중에서도 가을 단풍철은 산골짜기와 벼랑을 붉게 채색하는 단풍을 보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들로 가장 붐빈다.

국지도 49호선에 위치한 '내장산 오색 단풍길'은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1960년대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읍시에서 이 도로에 유난히 작고 붉은 내장산 단풍나무를 꾸준히 심고 가꾸어 오늘날의 오색 단풍길로 조성했다.

내장산의 단풍나무는 여느 단풍나무와는 달리, 잎의 크기가 작고 얇으면서 핏빛처럼 붉은 색을 띤다. 게다가 서리가 내릴 무렵이면 낙엽이 되어 퇴색해가는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 더욱 붉은 빛을 발한다.

내장저수지에서 오색 단풍길을 따라 이어지는 이 도로는 임진왜란 때 희묵대사가 쌓았다는 내장산성, 정읍사의 유래를 간직한 망부상 등을 지나 단풍터널로 유명한 내장사까지 이어진다. 내장사 입구에 위치한 아치형의 단풍터널은 길이 200m, 폭 6m의 길에 단풍나무가 5m 간격으로 심어져 있어 피카소의 그림보다도 화려한 색의 향연을 제공한다. 절정을 맞은 가을 속에서 여행자의 마음까지도 붉게 물들이는 길이다.

Focus

정읍시에 위치한 '내장산 오색 단풍길'은 국지도 49호선을 따라 내장저수지를 끼고 내장사에 이르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길이다. 미당 서정주 시인이 읊은 대로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 계절에 그 아름다움은 절정을 이룬다.

위치 : 전북 정읍시 내장동(부전삼거리~추령재) / 노선번호 : 국지도 49호선
준공일자 : 1960년 / 도로관리청 : 정읍시청

주변 볼거리 >> >

▶정읍사 공원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장터로 행상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의 안위를 걱정하는 여인의 애틋한 심정을 노래한 가요, 정읍사. 정읍사 공원에는 지아비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정읍사 여인의 망부상과 노래비를 비롯해 예술회관, 국악원,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내장사

백제 무왕 37년(636년)에 영은조사가 창건한 내장사는 내장산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늑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일주문 근처에 조성된 단풍터널은 1892년 내장사 스님들이 중생들로 하여금 백팔번뇌의 시름을 잊게 해 주기 위해, 108그루의 단풍나무를 옮겨 심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돌기둥으로 세워진 대웅전과 은은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 동종도 꼭 둘러봐야 할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다.

찾아가는 길 >> >

호남고속도로 정읍 I.C→내장 방면 국도 29호선→부전동→국지도 49호선→내장저수지→내장사

Tip

:: 내장산의 특산물, 복분자주

동의보감에는 복분자(산딸기)가 피로회복과 간 보호, 피부미용 등에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장산 복분자주는 정읍 내장산 일대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인 비법으로 빚어 온 토속주로서, 내장산으로 나물을 캐러 간 노부부가 복분자를 따 먹고 아이를 가졌다는 재미있는 유래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바다 위에 세운 건설 미학

「아름다운 도로」 – 우수상

영종대교

시원스럽게 트인 인천신공항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눈앞에 드넓은 창공과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지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뻗어 있는 영종대교의 모습이 나타난다.

영종대교는 국제공항이 자리잡은 영종도와 인천 장도를 잇는 영종도 유일의 연육교로서, 배가 없으면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영종도 사람들에게 뭍 길을 열고 하늘 길을 열어 준 교량이다.

총 연장 4,420m에 달하는 영종대교는 도로와 철도가 동시에 통과하고, 교량 아래로 1만 톤급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3차원 자정식(교량 스스로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 현수교로서, 강풍과 지진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세계 최대의 교통용량을 자랑하는 교량은 왕복 6차선의 상부 도로와 왕복 4차선 도로 및 복선 철도의 하부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창공으로 빨려들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고, 하부 도로에서는 바다를 좀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3차원 케이블이 그려내는 한국적인 선과 은은한 멋은 한옥의 곡선을 재현한 것으로서, 한국의 전통미를 내 · 외국인에 심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공법으로 시공한 영종대교의 웅장한 위용은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도 손색없는 면모를 보여준다.

Focus

인천국제공항을 뒤로한 채 서울에 이르는 관문에 위치한 영종대교는 국내 제1호 민자유치사업으로 완성되었다. 교량의 기능뿐 아니라 상징적 건설미학을 구현한 이 다리는 국내 토목건축물로서는 처음으로 2002년 일본 최고권위의 다나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위치 : 인천시 서구 경서동~인천시 중구 운북동 / 노선번호 : 고속국도 130호선 / 준공일자 : 2000년 11월 29일 / 도로관리청 : 신공항하이웨이

주변 볼거리 >> >

▶영종대교 기념관

영종대교에 관한 역사와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국내 최초의 교량과학관. 영종대교를 지나게 되면 꼭 한번 들러 볼 만한 곳이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영종대교의 건설 과정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관람할 수 있고, 전세계 10대 교량의 특징과 건설 과정에 관한 영상 자료도 마련되어 있다. 영종대교를 드라이브하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코너와 서해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3층 옥외전망대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을왕리 해수욕장

울창한 송림과 크고 작은 바위로 둘러싸인 을왕리 해수욕장은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 받는 영종도의 명소. 일찍부터 해수욕장으로 개방되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물론, 넓은 잔디밭과 다양한 놀이기구, 야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무엇보다 해변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낙조가 아름다운 곳이다.

찾아가는 길 >> >

노오지분기점→북인천 I.C→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Tip

:: 영화 '취화선' 촬영지

마치 붉은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한 영종대교 주변의 갯벌은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조선 말의 천재화가 장승업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취화선'의 촬영지이기도 한 이곳은 군데군데 염생식물들이 무리지어 있을 뿐, 단조롭기만 한 풍경 속에서 짙은 서정성이 묻어난다.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도로

「아름다운 도로」 – 우수상

산지천을 끼고 산지포구까지 이어지는, 중인문로. 제주 최대의 상권이 형성된 문화의 거리와 접하고 있으며, 1950년 개설된 제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로이다. 중인문로를 걷다 보면 제주만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향토 수종이 즐비하며, 산책로가 잘 닦여 있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산지포구에서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띈다. 이전에는 산지포로 가는 입구라 해서 산지 목골이라 불렸으나, 산지 목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문을 중인문이라 명명한 뒤부터는 마을 이름도 중인동, 도로 이름도 중인문로로 바뀌었다.

남수각에서 용진교까지 600m 정도의 구간을 복개하여 지어진 상가건물은, 그동안 제주시의 중심 상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으나, 1990년대 들어 복개 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다. 이 구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옛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되었다. 제주의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도심 속의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된 산지천은 돌다리 홍예교와 나무만으로 만들어진 산지교, 광제교가 대표적이다.

동문교에는 음악분수가 장관을 이뤄 시민들에게 또 다른 감흥을 선사한다. 또 조경수와 큰 나무를 식재하여 그늘과 의자를 제공하는 등 편익시설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 특히, 녹지 공간의 보도에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주석을 가공하여 포장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 도심 속의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게 배려했다.

Focus

2002년 4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사람 · 상품 ·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중인문로. 산지천을 복원하고 산책로와 아늑한 휴식공간을 꾸민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서 도로의 또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위치 : 제주시 일도1동 / 노선번호 : 중인문로(시도중로2류1호선)
준공일자 : 2002년 6월 / 도로관리청 : 제주시청

주변 볼거리 >> >

▶관덕정

만남의 장소이자 외지인들에게 길 안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관덕정. 국가 지정 보물 제322호로 조선 세종 때 제주 목사 신숙청이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상무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세운 곳이다. 관덕정은 건물 자체보다 대들보에 그려진 성산사호, 공명탄금도, 적벽대첩도, 십장생도, 홍문연 등의 작품으로 더욱 유명하다.

▶용두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물 용두암은 탑동 시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용두암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서려있는데 그 중 하나는 용왕의 사자가 약초를 캐러 왔다가 화살에 맞아 바다로 떨어지면서 머리만 남았다는 것이다. 용두암에서 동쪽으로 200m쯤 떨어진 곳에는 용연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용이 놀던 자리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Beautiful Roads in Korea

찾아가는 길 >> >

국도 12호선을 따라 제주시에 진입→6호 광장→동문로터리 방면→일도1동 동문로터리 북측에 위치

Tip

:: 제주의 먹거리

제주의 음식에는 제주민들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기 위해 양념을 거의 쓰지 않으며, 조리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대표적인 토속음식으로 옥돔구이, 갈치호박국, 게우젓, 오메기술, 자리강회, 물회 등이 있다.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길

「아름다운 도로」 – 우수상

길은, '안면송'이라고 불리는 곧고 푸른 소나무와, 은빛 모래밭을 뭍으로 밀어올리는 바다 사이에 한 줄 금을 그으며 뻗어 있다. 충남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위치한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길'이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로 빠져나와 서산 A · B 간척지구 방조제를 거쳐 안면도 방면으로 조금 달리면 안면대교가 나타난다. 안면대교는 안면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 안면도는 원래 바다를 향해 돌출된 '곶'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삼남지역의 세곡조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육지와 안면읍 창기리 사이를 절단한 이후부터 섬 아닌 섬이 되어 버렸다. 그 안면도를 다시 육지와 이어준 것이 바로 안면대교다. 안면대교를 건너 조금 더 가면 바다와 송림을 만날 수 있는 해안도로가 시작된다. 2002년에 개최된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장의 주 진입로로 이용되기도 했던 이 도로는 자연산 대하의 주산지인 백사장 포구부터, 곱고 단단한 모래가 사막처럼 광활하게 펼쳐진 삼봉해수욕장을 지나 갯바위와 자갈이 많아 아기자기한 방포해수욕장까지 연결된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천연기념물 제138호 모감주나무 군락지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송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 도로 위를 달리다보면 자동차도 사람도 어느새 그림 같은 풍경 속의 일부가 된다.

Focus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위치한, 방포에서 백사장까지 9.9㎞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도로다. 끝없이 이어지는 해변을 따라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잘 자란 울창한 송림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위치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방포~백사장) / 노선번호 : 군도 14호선
준공일자 : 2002년 6월 20일 / 도로관리청 : 태안군청

주변 볼거리 >> >

▶꽃지 해수욕장

안면도 해수욕장 중에서 으뜸을 꼽으라면, 단연 꽃지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해당화와 매화가 많았기 때문에 '꽃지'라는 명칭을 얻은 이곳은 장장 5㎞에 걸친 은빛 모래밭과 넘실거리는 서해, 푸른 소나무 숲 등이 이름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인다. 애틋한 전설을 간직한 할미 · 할아비 바위 뒤로 지는 저녁 해가 장관을 연출하는 이곳은 변산 채석강, 강화 석모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일몰 명소로 손꼽힌다.

▶방포 해수욕장

안면도에서 최초로 개방된 방포 해수욕장은 길이 700m, 폭 200m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심이 완만하고 주변에 많은 볼거리가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곱고 깨끗한 모래로 이루어진 안면도의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자갈과 바위가 많아 갯바위 낚시가 성하고,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적의 낚시 포인트로 꼽힌다. 젓개 포구와 가까워 가오리, 아나고, 우럭, 고등어 등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도 있다.

Beautiful Roads in Korea

찾아가는 길 >>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국도 29호선→갈산면→국지도 96호선→서산 A · B지구 간척지→국도 77호선→안면도 방면으로 5분→백사장항 입구 교차로→백사장 삼거리→해안관광도로→꽃지해수욕장

Tip

:: 백사장 대하축제

해마다 가을이면 백사장 포구는 온통 새우 굽는 연기로 자욱하다. 국내 최대의 자연산 대하 주산지인 백사장 포구에서는 1997년부터 매년 10월에 대하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대하 까기, 대하 먹기, 대하 경매, 풍어제, 가요제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벌어진다. 대하축제의 포인트는 무엇보다 알이 굵고 싱싱한 자연산 대하.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제철을 맞은 대하를 맛보거나 혹은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문화가 있는 벚꽃 길

「아름다운 도로」 – 우수상

터지는 꽃망울은 봄을 맞은 이들의 춘심에 불을 당긴다. 살랑살랑 마음을 흔드는 봄바람과 솜사탕처럼 보송보송한 벚꽃의 향연은 설레임의 또다른 이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도 819호선, 전남 영암군 영암읍부터 학산면 독천리까지 약 16㎞에 달하는 구간은 눈처럼 흩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길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 쪽에서 세발낙지로 유명한 학산면 독천리를 통해 진입하거나, 호남고속도로 광주 비아 I.C 쪽에서 영암읍소재지에서 접어드는 이 도로에는 30~40년은 족히 되었을 법한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 해마다 4월이면 꽃구름을 방불케 하는 벚꽃이 가히 장관을 이룬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위치한 전남 영암은 평야지대에 장엄한 표정으로 우뚝 솟아있는 월출산과 왕인박사 유적지로도 잘 알려진 고장. 벚꽃이 만개할 무렵에 때맞춰 열리는 왕인문화축제는 4월의 영암을 온통 축제 분위기로 술렁이게 한다. 활짝 핀 벚꽃 그늘 아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이곳은 이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전국적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벚꽃만큼이나 화사한 표정으로 물든 봄맞이 인파, 봄바람을 타고 전해오는 구수한 남도 사투리, 남도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축제, 다양한 볼거리가 어우러진 벚꽃길은 어쩌면 무심히 스쳐 지날 수도 있는 도로와 그 길 위의 사람을 하나로 엮어주는 공간인 것이다.

Focus

전남 영암에서 학산면 독천리에 이르는 16㎞에 달하는 벚꽃 길. 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매년 4월의 벚꽃은 화사하기 그지없다. 영암은 백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아스카문화를 꽃피우게 한 왕인박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학산면 독천리 / 노선번호 : 지방도 819호선
준공일자 : 1988년 / 도로관리청 : 전라남도지사

주변 볼거리 >> >

▶월출산

소백산맥 줄기가 바다를 향해 낮아지다가 평야 지대에 이르러 웅장하게 돌출된 국립공원 월출산은 영암을 대표하는 명소. 산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석 전시장'에 비유되기도 하고, 산세가 빼어나 '소금강'이라는 별칭 있을 정도로 아름답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해 낙조와 달맞이는 황홀한 장면을 연출한다.

▶왕인박사 유적지

영암은 지금으로부터 1,600여년 전, 백제시대에 일본 응신천왕의 초청으로 천자문과 논어, 도공, 직조공 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게 한 백제 문화의 첨병, 왕인박사의 고향이다. 왕인박사의 업적과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조성된 이 유적지에서는 왕인 묘, 전시관, 왕인 석상, 왕인 문화의 거리, 왕인박사가 홀로 학문에 정진했던 책굴 등 많은 유적을 만날 수 있다.

Beautiful Roads in Korea

찾아가는 길 >>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목포 하구언→국도 2호선→13㎞→학산면 독천리 왼편
▶호남고속도로 광주 비아 I.C→국도 13호선→영암읍소재지→우회전

Tip

:: 왕인문화축제

매년 4월 월출산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이루어지는 왕인문화축제. 축제 기간에는 화려한 벚꽃 아래서 바우제 · 왕인 춘향대제 · 왕인기자굿 · 천자문 천등행렬 · 도초제 줄다리기 · 장부질 노래 · 전통 한지공예 · 가야금 산조와 병창 등 향토색과 역사적 의미를 두루 갖춘 행사가 알차고 유익하게 펼쳐진다. 왕인문화축제는 2년 연속 전국 우수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강 위의 비상(飛上)

「아름다운 도로」 – 우수상

방화대교

주변경관과 더불어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방화대교. 올림픽 도로와 강변북로 어느 방향에서 감상해도 아름다운 방화대교는 밤이 되면, 한강 물결에 비치는 황홀한 야경으로 더욱 눈부시다.

이 교량은 조도를 확보하고 선박 운행을 위한 안정성을 높이며 한강의 야경을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미려하고 웅장한 아치 트러스 구조로 시공되었다. 입체 트러스 아치교는 풍하중이나 충격하중, 지진하중 등에 의한 진동을 탄성 에너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며, 주요 부재는 충분한 좌굴 저항력을 지녀 비틀림 강성이 매우 크다.

방화대교는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전용 고속도로의 일부로 건설된 27번째 교량이며, 총 연장 2.6㎞로 한강 교량 중 가장 길다. 또한 외국 방문객의 서울 입성 시, 강한 첫인상을 남기기에 손색없는 아름다운 교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방화대교는 입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징성, 차별성, 전통성과 환경친화적 개념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주변에는 88올림픽도로, 강변북로, 행주산성이 있어 수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방화대교의 아치는 전통 사찰과 기와집 처마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도입되어 개화산 봉우리, 덕양산 봉우리에 이어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이륙하려는 거대한 항공기를 연상시키는 기하학적인 형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그래서인지, 행주산성 아래 도도히 흐르는 한강의 야경에 한몫 하는 방화대교의 아름다움이 더욱 당당하게 보인다.

Focus

방화대교는 내국인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서울의 첫인상으로 다가가게 된다. 국내 최초로 장경간 트러스 아치교로 설계·시공된 한강의 27번째 교량으로 2000년 11월 준공되었다.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 노선번호 : 고속국도 130호선 / 준공일자 : 2000년 11월 11일 / 도로관리청 : 신공항하이웨이

주변 볼거리 >> >

▶서오릉

사적 제198호인 서오릉은 조선 왕조의 다섯 능인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을 일컫는 말이다. 오릉 이외에도 명종의 첫째 아들 순회세자의 순창원과 영조 후궁 영빈 이씨의 수경원이 있으며, 숙종의 후궁인 장희빈의 대빈묘도 최근 이곳으로 이장되었다. 서울 시내와 가깝고 조경이 깔끔하여 산책이나 조깅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행주산성

행주산성은 토축산성으로서 둘레는 약 1,000m이며 1593년 권율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왜군을 크게 물리친 행주대첩 전적지로 유명한 곳이다.

부녀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명명된 행주대첩은 충무공의 한산대첩과 더불어 역사에 길이 빛날 전투이다. 1970년 권율 도원수의 사당인 충장사를 다시 짓고 정자와 문을 세워 경역을 규모 있게 조성하였다.

찾아가는 길 >> >

강변북로 · 88올림픽대로
→가양대교와 행주대교 사이

Tip

:: 고양세계꽃박람회

매년 4~5월에 15일 동안 열리는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세계 화훼 선진국에서 많은 업체가 참가하여 화사한 봄을 선사한다. 호수공원 곳곳에 마련된 장미동산, 튤립동산, 동물 모형에 꽃을 입혀 전시한 토피리어원등을 둘러보면 좋다. 박람회장까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지나치기에 아까운 장회재 구간

「아름다운 도로」 – 우수상

수려한 산세를 휘감으며 흐르는 남한강 상류의 푸른 물줄기를 따라 달리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도로가 국도 36호선 장회재 구간이다.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에 위치한 이 도로에서는 단양8경 중에서도 손꼽히는 경관을 자랑하는 구담봉과 충주호 상류의 짙푸른 물빛을 바라보며 낭만적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장회재 구간에서 장회나루 선착장으로 내려서면, 충주호유람선이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 장회나루에서 유람선을 이용하면 제비봉과 신선봉 · 강선대 · 금수산 · 채운봉 등은 물론, 단양8경 중에서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구담봉과 옥순봉을 둘러볼 수 있다. 충주나루까지는 쾌속선으로 약 1시간, 대형선으로 2시간 남짓 소요된다.

장회나루 근처에는 도로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휴게소에 들르게 되면 호수 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언덕을 내려가 보는 것이 좋다. 아담하고 깨끗한 잔디밭과 짙은 그늘을 만드는 소나무가 잘 어우러져 있고, 월악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제비봉 산자락의 녹음이 바쁜 일정에 쫓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를 되찾게 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장회나루에서 단양 방면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공이교에서 국도 59호선을 타고 사인암 계곡으로 접어들면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 등 단양8경의 명승지들이 연이어 모습을 드러낸다. 계곡 사이를 달리면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풍광은 운전자들의 탄성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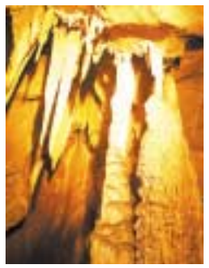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에 위치한 장회재 구간의 도로. 충주호를 옆에 끼고 달리게 되는 매력적인 호반도로로서 그냥 지나쳐 가기엔 너무 아까운 길이다. 이곳 장회재에서는 단양팔경의 제5경인 구담봉이 손에 잡힐 듯 보인다.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 노선번호 : 국도 36호선
준공일자 : 1997년 3월 19일 / 도로관리청 : 충주국도

주변 볼거리 >> >

▶도담삼봉

남한강의 맑고 푸른 강물 위로 세 개의 바위가 솟아 있는 도담삼봉은 단양8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이름난 명소. 높이 6m에 달하는 남봉을 중심으로 남봉과 마주보고 있는 봉우리가 첩봉, 등을 돌린 듯한 봉우리가 처봉이다. 이 곳에는 아들을 얻기 위해 첩을 둔 남봉과 이를 원망하며 돌아앉은 처봉의 전설이 서려 있다. 고려말 조선초의 학자인 정도전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도 전해온다.



▶고수동굴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된 고수동굴은 총 길이 1300m에 달하는 자연동굴이다. 동양최대의 석순인 황금주,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잠시 땅에 내려 앉는 형상의 독수리 바위 등 기묘하고 아름다운 형상의 종유석과 석순을 관찰하다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흐름과 자연이 빚어 놓은 최고의 작품이라 할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경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Beautiful Roads in Korea

찾아가는 길 >> >

서울→경부고속도로(부산 방면)→신갈분기점→영동고속도로(강릉 방면)→만종분기점→중앙고속도로(대구 방면)→단양 I.C→국도 36호선 충주 방면→장회나루

Tip

:: 단양8경

산세 빼어나고 물길 수려한 단양. 그 중에서도 도담삼봉, 석문, 구담봉, 옥순봉,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사인암 등은 조선 명종 때 단양 군수를 지냈던 퇴계 이황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단양 최고의 명승지로서, 예부터 단양8경이라는 명칭으로 세인의 칭송을 받아왔다. 충주댐이 건설되고 신단양이 개발되면서 최근에는 북벽, 온달산성, 다리안산, 칠성암, 일광굴, 금수산, 죽령폭포, 구봉팔문 등이 제2의 단양팔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름다운 샘골다리

「아름다운 도로」 – 우수상

샘골다리

벚꽃축제, 단풍축제,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등 정읍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축제의 무대가 되는 '아름다운 샘골다리'는 2001년에 준공된 교량으로서, 정읍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아름다운 교량의 모습과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정읍천의 풍경이 잘 어우러져 있고, 정읍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읍시민은 물론, 외지의 관광객에게도 좋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정읍천변 도로에 피는 벚꽃이 구름 같은 터널을 이뤄 벚꽃 구경을 온 관광객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샘골다리 주변에는 갖가지 야생화가 철따라 피어나며, 지형을 적절히 이용해 조성한 죽림폭포공원도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죽림폭포공원은 인공폭포의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 인공암반 3개소를 조성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는데, 여기에 설치된 조명은 샘골다리 석등과 어우러져 밤에도 그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상어와 비단잉어가 평화롭게 노니는 연못,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생태학습장, 소

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망상문, 해돋이 전망대, 물레방아, 청소년공연장, 등산로, 샘골정 등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정읍시에서는 시민들이 샘골다리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천변도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추진 중이다.

Focus

내장저수지로부터 흘러 정읍시가지에 이르는 정읍천에 세워진 작은 다리로 그리스 신전을 연상케 한다. 정읍천 주변 도로에는 벚꽃 터널이 있고 고수부지에는 원추리, 붓꽃, 벌개미취, 상록패랭이 등 야생화를 식재하여 다리와 함께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위치 : 전북 정읍시 시기동 / 노선번호 : 시도
준공일자 : 2001년 12월 / 도로관리청 : 정읍시청

주변 볼거리 >> >

▶황토현 전적지

동학농민혁명 당시, 1894년 5월(고종 11년)에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최초로 큰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황토현 전적지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동학농민혁명을 크게 확산시켰으며, 나아가 전주까지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오동학혁명 기념탑을 비롯해 전봉준 장군의 동상과 사당, 유품을 전시한 기념관, 전봉준 장군의 영정이 있는 강당, 광장 등이 자리잡고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서, 1981년 사적 제295호로 지정되었다.

▶피향정

신라 정강왕 때 고운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재직하면서 시작과 풍월을 즐기던 연못가에 세워진 정자. 현재 보물 28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6·25 사변 직후에는 잠시 면사무소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곳에 있는 두 개의 연못에는 연꽃이 만발해 그윽한 연꽃향기가 이 일대에 가득 퍼진다. 해마다 8월에는 풍성한 연꽃축제가 벌어진다.

Beautiful Roads in Korea

찾아가는 길 >> >

호남고속도로 정읍 I.C→정읍 I.C 사거리
→내장 방면 천변로→샘골다리

Tip

::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시대 봉건제도에 저항한 순수 농민개혁운동으로서, 이 고장인 고부 농민의 봉기로 시작되어 한국의 근·현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자 개최되는 행사. 매년 5월에 정읍천변을 비롯한 시내 일원에서 학술대회, 가장행렬, 마당극, 풍물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바람과 계곡의 교차로

「아름다운 도로」 – 우수상

주변의 아름다운 산을 벗삼아, 바람이 계곡을 타고 내리듯 매끄럽게 달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로 '바람과 계곡의 교차로'. 이곳은 옛 가야의 역사를 지닌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칠원분기점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마산 외곽고속도로를 이어 준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대구에서 부산이나 진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또한 주위의 아름다운 산맥과 조화를 이룬 이 교차로는 아래로 목가적인 풍경이 이어져, 잠시나마 일상에서 탈출한 기분을 만끽하게 한다. 이 교차로는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도로의 모습이 트럼펫 형상을 띠고 있어 운치를 더한다.

남쪽을 향해 마산 외곽고속도로를 타고 함안에 접어들면, 배가 다니는 낮은 곳을 의미하는 여항산에 닿게 된다. 이 산의 정상에서는 아련하게 보이는 지리산과 출렁이는 남해의 푸른 물결을 내려다볼 수 있어 좋다. 함안 I.C를 지나 남해고속도로를 따라 마산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입곡저수지가 나오는데, 협곡을 가로막은 이 저수지는 둘레가 약 4㎞로, 폭은 좁지만 길이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칠서 I.C를 지나 칠서면에 들어서면, 조선시대 유학자인 주세붕 선생의 영정과 유품을 모신 무산사, 덕연사원, 지정 문화재인 약사여래좌상이 보관되어 있는 장춘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주변에는 관광농원이 있어, 주말을 이용해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칠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Focus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마산 외곽고속도로를 잇는 트럼펫 형식의 입체 교차로로서 웅장함과 부드러움을 연출하는 토목구조물의 이미지를 전해준다. 잔잔한 계곡의 바람처럼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아름다운 산세를 즐길 수 있는 도로로서 편안한 운전 환경을 제공한다.

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 노선번호 : 고속도로 102호
준공일자 : 2001년 11월 8일 / 도로관리청 :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주변 볼거리 >> >

▶돝섬 해상유원지

유명한 가곡 '가고파'의 배경인 마산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돝섬. 옛날 가락국 왕의 총애를 받던 미희가 마산 앞바다로 홀연히 사라진 이후 섬이 돼지 누운 모습으로 변하여 그때부터 돼지의 옛말 '돝'을 따서 돝섬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섬 전체가 울창한 수림으로 조성되어 삼림욕을 즐길 수 있고, 각종 위락 편의 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는 해상 공원이다.

▶마산부두

3.15 의거의 발상지인 마산시는 중심부에 무학산 대곡산, 팔룡산, 청량산 등의 구릉성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마산시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 항구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해 오늘날까지도 항구도시로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마산부두에서 서남쪽 해안을 내려다보면 자연만과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경치가 매우 수려하다.

찾아가는 길 >> >

남해고속국도 45번 이용→함안 I.C→칠원분기점

Tip

:: 함안의 '아라제'

함안에서는 10~11월 초순 무렵에 '아라제'를 열고 있다. 군청사 개청일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이 축제는, 현재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먹거리장터 등이 3일 동안 진행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함안의 축제로 자리잡았다. 특히 새우와 민물조개 등은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탁월한 맛을 자랑한다.

사계(四季)가 있는 가로수

봄에는 연둣빛 새싹으로, 여름에는 녹음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겨울에는 눈꽃으로 '꿈의 드라이브 코스'라 불리는 길.

전남 담양읍 남산리에서 금성면에 이르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녹음이 우거져 있어, 마치 초록빛 동굴을 통과하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높이 20m에 이르는 아름드리 나무들은 저마다 짙푸른 가지를 뻗치고 있어, 차를 세우고 걷노라면 메타세쿼이아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에 매료되고 만다.

담양읍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366호 관방제림 구역 내에는 185그루의 노거목이 즐비하다. 이 중 큰 나무들은 3~4백년 전에 식재되었으며, 작은 나무들은 1854년에 식재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이 숲은 수해와 바람을 막아내는 데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위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 남산~금성, 원율)
노선번호 : 일반국도 24호선
준공일자 : 1971년
도로관리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과거와 현대의 만남

김천시의 황악로는 단순한 도로 개념에서 탈피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설치, 수벽 식재를 통해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국도를 따라 김천으로 접어들면 대항면 직지사 입구가 나타난다. 직지사 입구를 지나 김천 시내 방향으로 계속 차를 몰면, 대곡동에 들어서자마자 영남제일문이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우뚝 서 있다. 6차선 도로의 시원함에 영남제일문의 위용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인 양 그 모습이 장관이다.

영남제일문은 높이 12m, 길이 50m의 철근 콘크리이트 구조물에 맞배 · 팔작기와지붕, 다포식으로 지어진 건축물. 금모로 단청과 함께 무형문화재 제14호 기능자인 단청장 조정우 선생이 징, 장고, 꽹과리, 포도 등 김천의 상징물을 직접 그려 넣어 품위와 고전미를 더하고 있다.

위치 : 경북 김천시 다수동 / 노선번호 : 국도4호선
준공일자 : 1999년 12월 / 도로관리청 : 김천시청

Beautiful Roads in Korea

「아름다운 도로」 – 선외가작

숲과 물이 있는 AG 상징가로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부산 AG 상징가로'. 이곳은 부산 AG 주 경기장 주변의 일반 도로로서, '2002 부산 아시아드'를 상징적으로 명소화시키고, 부산의 자연 · 인문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등 열린 마당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상징 게이트, 오름분수 등 다양한 수경시설과 도로 바닥에 설치된 광섬유는 야간에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체적인 가로 시설물과 포장은 닻, 돛대, 항구 등 부산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색상도 파란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느티나무와 남부 수종인 후박나무를 2열로 식재한 가로수 길은 운치가 있으며, 교차로 교통섬에는 조형 소나무를 식재하여 입구임을 강조했다.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R~ 동래구 미남 R / 노선번호 : 부산 AG 상징가로
준공일자 : 2002년 7월 / 도로관리청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가로수길의 사계(四季)

계절마다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청주 가로수 길. 잘 포장된 4차선 도로 양쪽으로 싱그럽게 어우러진 가로수 터널을 이루어 봄에는 햇살을 더욱 아름답게 비춰주고, 여름에는 따가운 햇살을 막아 준다. 또 가을엔 낙엽의 휘날림으로, 겨울엔 흰눈에 파묻힌 앙상한 나뭇가지로 고고함을 전한다.

청주의 관문인 진입로 가로수 터널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I.C에서 가경천 죽천교까지 6㎞에 걸쳐 1천5백여 그루의 플라타너스가 빽빽이 늘어서 있어 매우 아름답다. 잎이 무성할 때에는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하며, 플라타너스가 마치 동굴을 이루듯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 전국의 진입로 중 가장 운치 있는 곳이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위치 : 충북 청주시 강서동(강서동~석소동) / 노선번호 : 국도 36호선
준공일자 : 1970년 / 도로관리청 : 청주시

Beautiful Roads in Korea

「아름다운 도로」 – 선외가작

걷고 싶은 거리

전통과 미래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객사길. 전주 시내에 위치한 객사길은 안전하고 즐거운 쇼핑을 위해 보행자 위주로 조성된 관광거리이다. 또한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및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동참하여 환경 개선을 도모한 친환경적 도로이다.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 문화, 자연을 담은 내용으로 거리별 테마를 설정하였다. 자연의 길에는 전주 주변의 산과 강을, 문화의 길에는 월드컵 관련 각종 엠블렘 및 태극선 · 합죽선 · 판소리 · 전주비빔밥을, 역사의 길에는 문화유적 및 유물 등을 도로 바닥에 도판으로 장식하였다. 특히 지중화 공사를 실시하여 거미줄 같은 선로를 없앴으며, 아름답고 고전적인 가로등을 설치하고, 바닥에 조명 · 광섬유를 설치하여 빼어난 야경을 자랑한다.

위치 : 전북 전주시 고사동 / 노선번호 : 시도 81호선
준공일자 : 2002년 5월 22일 / 도로관리청 : 전주시

태고적 신비

하늘을 향해 시원스럽게 뻗은 나무와 울창한 수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윽한 운치를 자아내는 국립수목원 진입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의 봉선사 앞부터 국립수목원에 이르는 2㎞ 구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잘 알려져 있다.

짙은 녹음이 발산하는 수풀 내음과 아늑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 도로는 특히 차량의 통행이 뜸한 이른 아침이나 신록이 싱그러운 4~5월경에 더욱 아름답다.

삼림욕을 즐기며 드라이브를 하다가 고모리 카페촌에서 향이 좋은 차를 한 잔 마셔도 좋고, 세조와 세조비 정희왕후의 능인 광릉, 정희왕후 윤씨가 세조를 위해 지었다는 봉선사 등 가까운 문화유적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춘원 이광수가 기거하며 글을 썼다는 봉선사에는 그의 기념비가 남아 있어, 모처럼 춘원의 삶과 작품세계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봉선사~국립수목원)
노선번호 : 군도 14호
준공일자 : 1975년
도로관리청 : 남양주시

Beautiful Roads in Korea

「아름다운 도로」 – 선외가작

세계로(世界路), 미래로(未來路)

김포공항이, 동북아시아의 중추적인 공항 기능을 담당하게 될 신공항에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넘겨 주면서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접근 수단으로 개발된 공항 전용 고속도로.

국내 최초의 민간자본 유치 시설사업으로 총 11개 건설사가 참여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목적지 전용도로이자,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과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디지털 고속도로로 설계 ·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도로 이용객들은 교통체증의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바다를 가로질러 막힘 없이 곧게 뻗어 있는 이 도로는 세계화 시대에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한국 미래의 탄탄대로를 의미한다. 또한 육지와 섬을 이어,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위치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인천시 중구 운서동 / 노선번호 : 고속국도 130호선
준공일자 : 2000년 11월 29일 / 도로관리청 : 신공항하이웨이

바다 위를 달리는 해상교량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해운대 풍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변화의 중심에는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과 해운대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광안대로가 있다. 총 연장이 7㎞를 넘는 광안대로는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관광시설인 동시에, 세계적인 항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부산의 대표적인 상징 조형물이다. 해운대 · 광안리 해수욕장, 오륙도 이기대공원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해안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가 비상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광안대로 현수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교량으로서, 경관 조명 시설을 통해 부산 앞바다의 야경을 더욱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연출한다.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해운대구 센텀시티 부근 / 노선번호 : 중로 1-210호
준공일자 : 2003년 1월(예정) / 도로관리청 : 부산광역시

Beautiful Roads in Korea

「아름다운 도로」 – 선외가작

신비로움을 향한 문등(門燈)

한강의 표정을 화려하고 신비롭게 바꿔놓은 방화대교. 2000년 11월에 완공된 이 교량은 철재 트러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져 조형적 미와 규모의 웅장함을 보여준다.

국내 유일의 독창적 교량으로서, 수면을 박차고 상승하는 비행체의 형태가 연상되기도 하고, 수면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의 이미지가 느껴지기도 한다. 교량의 고유 색상인 붉은 색은 아치 구조와 조화를 이뤄 타오르는 엔진의 빛과 화려하고 신비로운 일출을 연상시킨다.

밤에는 트러스 내부에서 차오르는 빛의 밀도감을 통해, 적황색의 강렬한 스틸 트러스 구조체의 이미지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순화시켜 주는 등 세계를 향한 역동성과 한국적인 신비로움을 동시에 표현해주고 있다.

위치 : 서울 강서구 방화동~경기 고양시 강매동 / 노선번호 : 고속국도 130호선
준공일자 : 2000년 11월 11일 / 도로관리청 : 신공항하이웨이

하늘에 닿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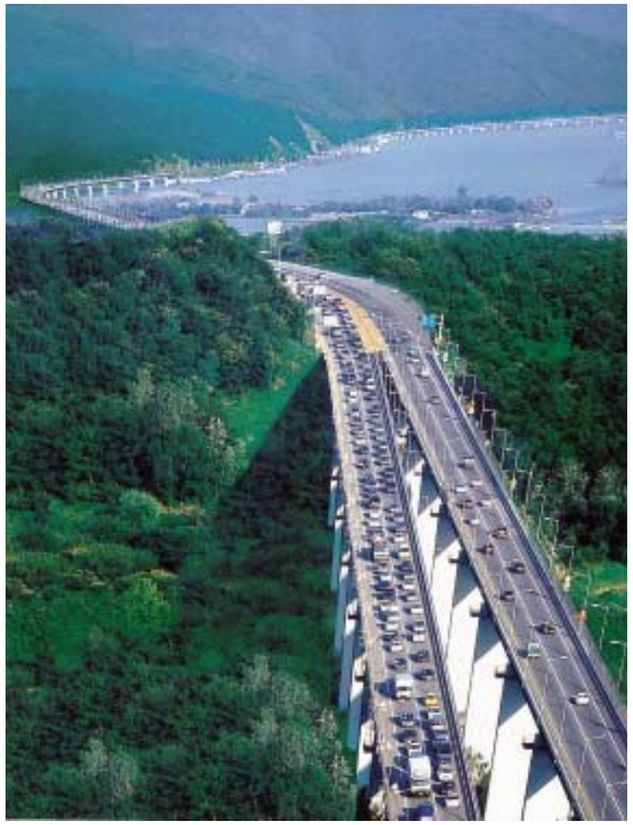
남원시 주천면에서 지리산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하늘에 닿을 것만 같은 해발 1,172m의 정령치에 도착한다. 1987년에 건설된 주천~정령치 간 지방도 737호선은 거대하게만 느껴졌던 지리산을 한층 가깝고 친근하게 변모시켰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지리산 등산이 1박2일 코스, 당일 코스, 심지어 반나절 코스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구불구불한 산등성이를 휘돌아 넘다보면, 발 아래 펼쳐지는 남원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또한 북동쪽으로 뱀사골 계곡과 동남쪽으로는 노고단, 반야봉을 거쳐 천왕봉까지 지리산의 명봉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철쭉이 만개할 때쯤이면 꽃불 놓인 듯한 노고단 전경이 황홀한 느낌을 자아내고, 운해 자욱한 날은 산모롱이를 휘감고 도는 구름에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위치 :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 노선번호 : 지방도 737호선
준공일자 : 1987년 10월 / 도로관리청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Beautiful Roads in Korea

친환경적인 한강의 물갓도로



서울에서 국도 6호선을 타고 5개의 터널을 통해 험준한 산지를 지나면 하늘에 매달린 듯한 봉안대교가 나타난다. 여기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의 두물머리 들판을 신양수대교로 가로지르며, 팔당호 내의 물갓교량인 용담대교를 내달리는 길이 친환경적인 '한강의 물갓도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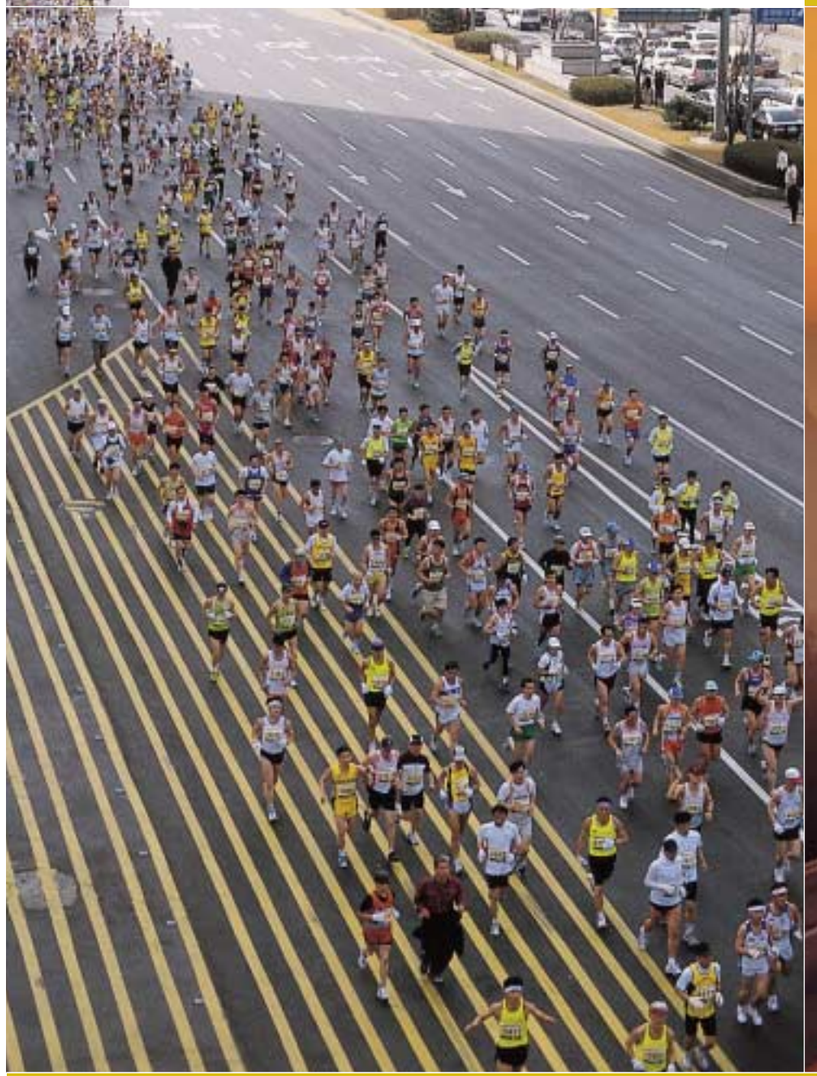
도로와 호수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무도장공법을 채택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계획·건설된 이 길에서는 양평까지 탁 트인 전망과 한강의 푸른 물결, 그리고 팔당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정다산 마을이라 불리는 다산 유적지, 영상 관련 테마파크인 서울종합촬영소, 종합 레저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새터유원지 등과 연결되어 있어 주말 나들이나 드라이브 코스로 더없이 좋은 곳이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노선번호 : 국도 6호선
준공일자 : 1998년 12월 30일
도로관리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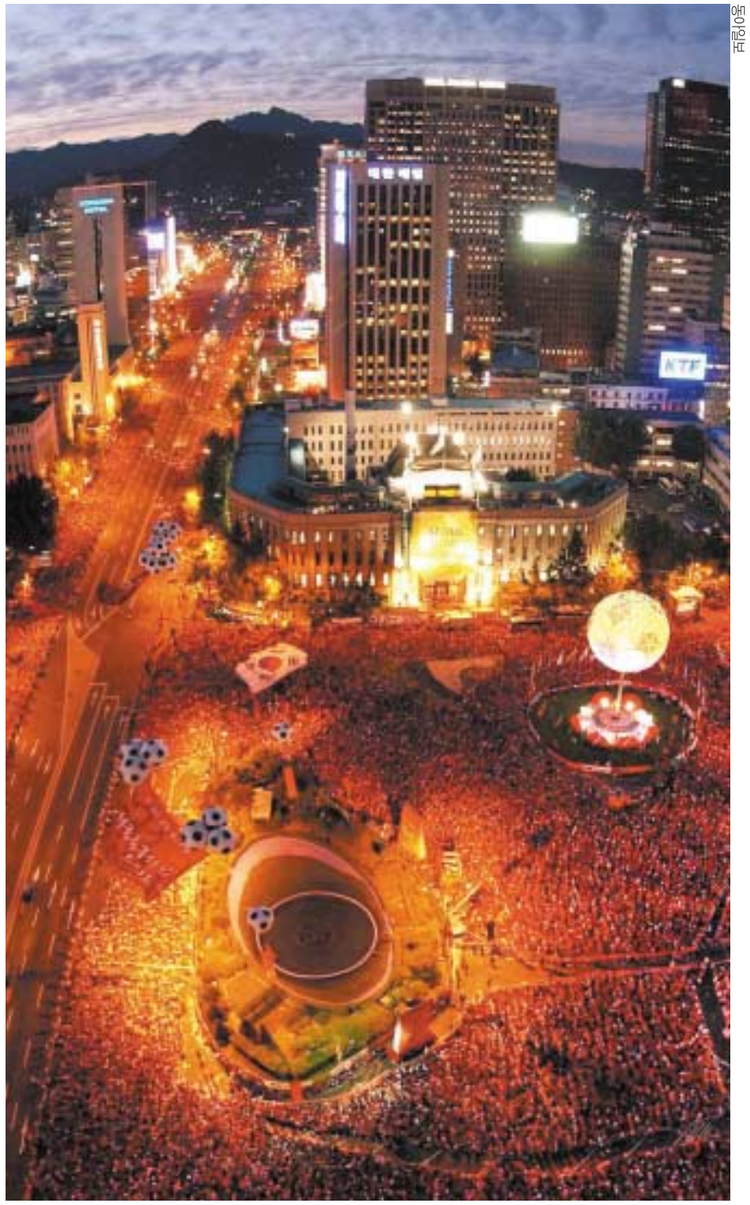
| 도로의 또 다른 얼굴 |
| 도로의 개요 |
| 「아름다운 도로」 출품작 |
| 에필로그 |

부록



길 위에서 만난 삶의 단상

길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무대이자 인생의 거울이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삶의 다양한 표정들을 만나게 된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는 순간, 문득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다.



퍼링이동

喜 喜 喜 喜

붉은 악마,
과연, 그 어떤 힘이
수천 수만의 인파를 길 위로
쏟아져 나오게 한 것일까.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기쁨과
희망의 에너지가 붉은 함성이 되어
도로 위를 메웠다.
서로 다른 꿈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이 길 위에서만큼은 한결같은 꿈을 꾼다.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혈관처럼 뻗은 길은
우리네 삶을 일구는 현장이다.
굵은 땀방울이 배어 있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힘을 얻고,
고단한 삶을 풀어놓으며 휴식을 취한다.

勞 勞 勞 勞

걸에서 이뤄지는 온갖 축제와 행사들….
그 길위에는 문화와 여유로움, 설렘과 즐거움이 살아 숨쉰다.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
이 길위에서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꿈을 꾸게 될까.

나란히 걸기만해도
시가되고, 노래가되는 길.
길은 그 자체만으로 사람의 말을 대신한다.
길위에서 시작되어 길위에서 잊어 가는 사랑,
그리고
때론 찡겨문 얼굴로, 때론 행복한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

도로의 개요

■도로의 종류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분류, 도로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따라 구분된다. 도로의 계획 및 건설, 관리를 위한 관할권상으로는 도로법에 의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법에 규정된 각 급 도로의 정의 및 관리청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법정 도로 또는 준용되는 이외의 길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농어촌도로가 있다. 현재 주요 지방도의 일부는 지역 개발 측면에서 일반국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도로에 적절한 투자를 못하고 있어,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여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등 급	정 의	관 리 청
고속국도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 부분을 이루는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 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건설교통부장관(한국도로공사 사장 대행)
일반국도	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건설교통부 장관(시 관내는 해당 시장)
특별·광역시도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구역 내의 도로	특별·광역시장
지 방 도	도 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도 지 사
시 도	시 구역 내의 도로	시 장
군 도	군 구역 내의 도로	군 수
구 도	구 구역 내의 도로	구 청 장

주 : 도로법에서의 기타 도로
1) 준용도로(법 제10조) : 법정 도로 이외 도로로,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공고 및 관리
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 관할 시장, 군수가 관리

■도로현황 총괄

우리나라 도로망은 전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가 주축을 이루고, 각 도내의 지역 생활권을 연결하는 지방도 및 군도, 시가지 내 가로 등이 상호 연계되어 전국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각 도로는 종횡으로 연결되고 있으나 국토의 지형 조건 등으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경우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비교적 발달되고 교통량도 많은 편이다.

도로의 총 연장은 2001년 말 현재 91,396km이고, 이중 70,146km가 포장되어 포장률은 76.7%이다. 포장도로의 21.6%인 15,170km가 4차로 이상의 도로이고, 78.4%인 54,976km가 2차로 이하의 도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로수준은 국토의 ㎢당 도로 연장은 0.92km로 선진 외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 도로의 수송력 강화에 많은 개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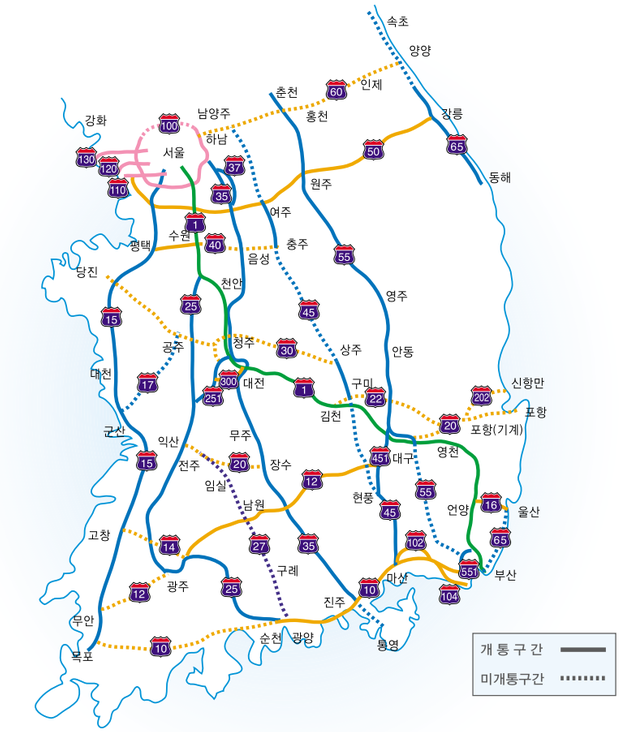
(2001. 12월말 기준)

구 분	연장(km)	구성비(%)	포장연장(km)	포장률(%)	포장도로의 차선별 연장 (km)			
					2차선 이하	4차선	6차선	8차선이상
고속국도	2,637	2.9	2,637	100	225	1,940	230	242
일반국도	14,254	15.6	13,759	96.5	9,401	3,736	622	--
특별 · 광역시도	17,810	19.5	16,662	93.5	12,937	1,792	1,115	819
지방도	15,704	17.2	12,320	78.5	11,306	856	108	49
시 도	17,533	19.2	13,055	74.4	9,455	2,246	1,048	306
군 도	23,458	25.6	11,713	49.9	11,653	54	6	1
계	91,396	100	70,146	76.7	54,977	10,624	3,129	1,417

■고속국도

고속국도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도 부르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국가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다. 이 도로는 고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의 선형, 포장 구조 등이 타 도로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속국도로는 1968년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29.5km가 처음으로 건설되었고, 1970년 7월7일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426km가 개통되면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바뀌게 되었다. 2002년 12월 현재 총 24개 노선 2,786km가 육로 수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속국도 노선도



(2002. 12월말 기준)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from-to)	개통 연장 (km)
1	경부선	부산~서울	425.48
10	남해선	순천~부산	169.32
12	88올림픽선	무안~대구	183.03
14	고창~담양선	고창~담양	–
15	서해안선	무안~서울	340.61
16	울산선	언양~울산	14.30
17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
20	익산~포항선	장수IC~장수JCT	2.61
22	김천~영천선	김천~영천	–
25	호남선, 천안~논산선	순천~논산 천안~논산	276.12
27	순천~완주선	순천~완주	–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from-to)	개통 연장 (km)
30	당진~상주선	당진~상주	–
35	중부선 대전~통영선,	대전~하남 통영~대전	285.77
37	제2중부선	마장~산곡	31.07
40	평택~충주선	평택~충주	26.60
45	중부내륙선	마산~양평	126.10
50	영동선	인천~강릉	234.39
55	중앙선	부산~춘천	288.87
60	서울~양양선	서울~양양	–
65	동해선	동해~주문진	61.82
100	서울외곽선	일산~퇴계원	91.25
102	마산외곽선	산인~창원	16.15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from-to)	개통 연장 (km)
104	남해제2지선	냉정~부산	20.60
110	제2경인선	인천~안양	26.63
120	경인선	인천~서울	23.89
130	인천국제공항선	인천~고양	36.55
202	익산~포항선의지선	기계~신항만	–
251	호남선의지선	논산~대전	53.97
300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산내	12.50
451	구마선	현풍~대구	30.00
551	중앙선의 지선	양산~김해	8.20
계	24개 노선		2,785.83

주 :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에 따름(대통령령제 17,794호 : 2002. 12. 5)

도로의 개요

■일반국도

전국의 주요 도시 및 지정 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의 간선 도로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교통 여건 악화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국도는 국가 간선망의 일부이므로 간선 기능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2개 도 이상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것을 기본적 요건으로 하되 국가 공단, 국가 지정 항만, 주요 비행장 및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 시설을 연결하는 도로, 도심 통과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우회 순환기능을 가진 도로, 또는 도로 용량 차원에서 연계 보완하는 도로로 개념을 넓혀 가야 한다.

2001년 말 현재 56개 노선, 총 연장 14,254km가 전국을 종횡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13,759km가 포장되어 포장률은 96.5%이다. 일반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노선을 지정 관리하며, 시 구역 내의 일반국도는 관할 시장이 관리한다. 일반국도의 간선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의 우회도로를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하여 1996년부터 정부가 공사비를 보조 • 건설하고 있다.

(2001. 12월말 기준)

노선번호	구 간	연장 (km)	노선번호	구 간	연장 (km)	노선번호	구 간	연장 (km)
1	목포 ~ 신의주(파주)	496	23	강진 ~ 천안	372	43	연기 ~ 고성	237
2	신안 ~ 부산	481	24	신안 ~ 울산	388	44	양평 ~ 양양	134
3	남해 ~ 초산(철원)	550	25	진해 ~ 청주	267	45	서산 ~ 가평	145
4	군산 ~ 경주	354	26	군산 ~ 대구	177	46	인천 ~ 고성	227
5	마산 ~ 중강진(김화)	516	27	고흥 ~ 군산	171	47	안산 ~ 철원	112
6	인천 ~ 강릉	271	28	영주 ~ 포항	197	48	강화 ~ 서울	64
7	부산 ~ 온성(고성)	513	29	보성 ~ 서산	303	56	철원 ~ 양양	187
11	서귀포 ~ 제주	41	30	부안 ~ 대구	316	58	진해 ~ 청도	84
12	제주 제1우회선	176	31	부산 ~ 신고산	628	59	광양 ~ 양양	416
13	완도 ~ 금산	316	32	서산 ~ 대전	177	67	칠곡 ~ 구미	23
14	거제 ~ 포항	292	33	고성 ~ 구미	187	75	가평 ~ 화천	78
15	고흥 ~ 담양	152	34	당진 ~ 영덕	266	77	부산 ~ 인천	651
16	제주 제2우회선	174	35	부산 ~ 강릉	326	79	의령 ~ 창녕	90
17	여수 ~ 용인	409	36	보령 ~ 울진	290	82	평택 ~ 화성	11
18	진도 ~ 구례	237	37	거창 ~ 파주	416	87	포천 ~ 철원	71
19	남해 ~ 홍천	461	38	서산 ~ 동해	313	88	영양 ~ 울진	37
20	산청 ~ 포항	243	39	부여 ~ 의정부	214	95	남제주 ~ 북제주	29
21	남원 ~ 이천	328	40	예산 ~ 공주	112	99	서귀포 ~ 제주	35
22	정읍 ~ 순천	184	42	인천 ~ 동해	309	계		14,254

■특별 · 광역시도 및 시도

우리나라의 수도로 인구 1,100만 명의 거대 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의 도로는 특별시도로, 그리고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의 광역시 내의 도로는 광역시도로 한다. 시도는 일반 시의 시내 도로이다. 이들 도로는 해당 시장이 노선을 인정, 건설, 관리하며, 또한 관할구역 내의 일반국도와 지방도를 건설, 관리하고 있다. 이들 도시부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적으로 너비 8m 이상의 도로로 구성된다.

2001년 말 현재 특별 · 광역시도의 총 연장은 17,810Km이며, 시도는 17,533Km이다. 광역시는 1995년에 직할시의 구역을 확장하여 광역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로의 명칭 또한 광역시도로 변경되었다.

특별 · 광역시도 현황

(2001. 12월말 기준)

시	총연장(km)	포장연장(km)	포장률(%)
서울	7,737	7,725	99.8
부산	2,401	2,361	98.3
대구	1,771	1,771	100
인천	1,411	1,408	99.8
광주	1,092	1,092	100
대전	1,317	1,308	99.3
울산	2,081	997	47.9
계	17,810	16,662	93.5

도별 시도 현황

(2001. 12월말 기준)

시	총연장(km)	포장연장(km)	포장률(%)
경기	5,404	4,722	87.4
강원	1,587	948	59.7
충북	1,484	915	61.6
충남	1,316	675	51.3
전북	772	736	95.4
전남	1,781	828	46.5
경북	1,044	1,005	96.3
경남	3,090	2,179	70.5
제주	1,056	1,047	99.1
계	17,534	13,055	74.4

■지방도, 군도 및 구도

지방도는 도청 소재지로부터 시 ·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 ·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및 도내의 주요시설로부터 상급의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 등 지방의 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다.

군도는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 ·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와 읍 ·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군내의 도로이다.

구도는 구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이들 도로는 해당 도지사, 군수 및 구청장이 노선을 인정, 건설 · 관리한다.

지방도중 일반국도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간선도로를 「국가지원방도」로 지정하여, 96년부터 정부가 공사비를 보조 ·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 유통 활동 등에 이용되는 공로로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이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로서 군도보다 하위의 도로라 할 수 있다.

(2001. 12월말 기준)

도 별	지방도					군도		
	총연장(km)		포장연장(km)		포장률(%)	총연장(km)	포장연장(km)	포장률(%)
부 산	–		–		100.0	68	51	75.3
대 구	18	(18)	18	(18)	100.0 (100.0)	135	104	77.3
인 천	64	(64)	42	(42)	66.0 (66.0)	426	270	63.5
울 산	13	(13)	13	(13)	100.0 (100.0)	249	204	82.1
경 기	2,501	(987)	1,929	(776)	77.1 (78.6)	1,788	1,117	62.5
강 원	1,501	(226)	1,204	(219)	80.2 (96.6)	2,803	1,269	45.3
충 북	1,418	(268)	1,201	(231)	84.7 (86.2)	2,286	931	40.7
충 남	1,601	(371)	1,233	(261)	77.0 (70.2)	2,091	1,338	64.0
전 북	1,694	(263)	1,316	(254)	77.7 (96.5)	2,149	881	41.0
전 남	1,742	(325)	1,361	(217)	78.1 (66.9)	3,391	1,880	55.4
경 북	2,662	(662)	2,171	(534)	81.6 (80.8)	3,780	1,692	44.8
경 남	2,248	(319)	1,614	(228)	71.8 (71.7)	3,388	1,479	43.7
제 주	242	(64)	217	(64)	89.9 (100.0)	905	497	54.9
계	15,704	(3,508)	12,319	(2,857)	78.5 (79.8)	23,459	11,713	49.9

※ 주 : ( )내는 국가지원방도

■교통량

2001년 현재, 연 평균 1일 교통량은 고속국도가 약 47,014대, 일반국도 12,143대, 지방도 4,784대 수준이다.

앞으로 교통량도 자동차 보유 대수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될 것이다. 최근 5년간 지방부 도로의 증가 배수는 총 차량 주행 거리(VKT)를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 배수의 0.48배가 신장됨을 감안할 때, 자동차 보유 대수가 현재의 1.5배로 증가되는 2010년에 지방부 도로의 교통량은 현재의 1.7배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송 형태는 국토의 지형 여건으로 수송 거리가 짧아 항공이나 해운보다는 육운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

현재 도로 교통이 여객과 화물 수송의 약 84% 및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로 부문의 수송 분담 비중 증대, 여행객의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 수단 선호 추세와 장거리 이동의 유리함 등으로 항공 및 고급 철도의 수송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 1일 평균 교통량 현황

연 도	고 속 도 로	일 반 국 도
1990	22,875	6,875
1991	28,140	8,363
1992	33,362	10,425
1993	38,904	11,537
1994	41,417	12,947
1995	44,634	14,819
1996	46,275	14,866
1997	49,993	14,825
1998	42,890	12,097
1999	45,936	13,048
2000	50,675	12,695
2001	47,014	12,143

도로표지

도로등급	형태	바탕 색상	예시
고속국도	방패형	청색과 적색	15
일반국도	타원	청색	39
지방도	사각형	황색	306
시도	육각형	백색	88

「아름다운 도로」 출품작

번호	출품작 제목	노선번호	위 치	출품자
1	억새꽃과 삼나무 숲이 아름다운 도로	지방도 1112호	제주 제주 봉개	박용현
2	산과 물이 어우러진 호반속의 도로	국도 6호선	경기 양평 양서 용담	오의진
3	푸른바다 위 구름다리	고속국도 15호선	경기 평택 포승 내기	송필용
4	내장산 오색단풍길	국지도 49호선	전북 정읍 내장	김우술
5	바다위에 세운 건설 미학	고속국도 130호선	인천 서 경서	노명일
6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도로	제주시도중2류1호	제주 제주 일도 1	홍충기
7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길	태안군도 14호선	충남 태안 안면	조병욱
8	문화가 있는 벚꽃 길	지방도 819호	전남 영암 영암	김정선
9	한강위의 비상	고속국도 130호선	서울 강서 방화	정규봉
10	지나치기에 아까운 장회재 구간	국도36호선	충북 단양 단성 장회	강창구
11	아름다운 샘골다리	정읍지대로3류4호	전북 정읍 시기	김우술
12	바람과 계곡의 교차로	고속국도 102호선	경남 함안 칠원 유원	이연수
13	사계가 있는 가로수	국도 24호선	전남 담양 담양	최현구
14	과거와 현대의 만남	국도 4호선	경북 김천 다수	김병기
15	숲과 물이 있는 AG 상징거리		부산 연제 연산	장형택
16	가로수길의 사계(四季)	국도 36호선	충북 청주 흥덕 강서	한대수
17	걷고 싶은 거리	전주시도 81호선	전주 완산 고사	임정빈
18	태고적 신비	남양주군도 14호선	경기 남양주 진접 부평	이태국
19	세계로(世界路) 미래로(未來路)	고속국도 130호선	인천 서구 경서동	노명일
20	바다위를 달리는 해상교량	부산시도 중로1	부산 수영 남천	이동곤
21	신비로움을 향한 門證	고속국도 130호선	서울 강서 방화	임승남
22	하늘에 닿는 길	지방도 737호선	전북 남원 주천 고기	김태완
23	친환경적인 한강의 물갓도로	국도 6호선	경기 남양주 조안 조안	오의진
24	만산홍엽(滿山紅葉)의 단풍길	국도 31호선	강원 홍천 내면 방내	황인엽
25	한가로움이 있는 은행나무 길	국도 31호선	강원 영월 상동 내덕	안태유
26	초등학교 등교 길	국도 32호선	충남 공주 우성 동대	이동훈
27	신선이 노닐다간 선암계곡의 특선암교	국도 59호선	충북 단양 단성 벌천	강창구
28	역사(정이품송)와 어우러진 도로	국도 37호선	충북 보은 내속리	전용철
29	유관순 열사 사우가는 길	국도 21호선	충남 천안 목천 응원	이용갑
30	화행도로(化行道路)	국도 25호선	경북 구미 해평 금호	장해수
31	화단(花壇)이 있는 길	국도 33호선	경북 구미 선산 동부	김상조
32	평사리(平沙理) 가는 길	국도 19호선	경남 하동 악양 평사	이동석
33	오두막이 있는 풍경(風景)	국도 31호선	경북 청송 부남 대전	김재현
34	신(神)이 가장 먼저 만든 꽃과 인(人)의 길	국도4호선	경북 경주 서 아화	장종익
35	해수욕장 가는 길	국도 7호선	경북 영덕 남정 장사	이재원
36	자연과 하나되는 길	국도 31호선	경북 봉화 석포 대현	허남현
37	역사적 관문에 위치한 친환경 도로	국도 3호선	경북 문경 마성 신현	허남현
38	오색화 국도(五色化國道)	국도 14호선	부산 기장 철마	김환범
39	도로가 해(海), 송(松)에 빠진 날	국도 14호선	부산 기장 일광 동백	김환범
40	인간의 꿈이 승천(昇天)하는 국도	국도 24호선	경남 밀양 청도 두곡	김창국
41	시범도로(새천년거리)		부산 부산진 부전	이도훈
42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의 숨결 느껴지는 해안순환로	군도 15호선	인천 강화 갑곶	황동환
43	섬-물을 잇는 영흥대교	군도 14호선	인천 옹진 영흥	이상열
44	무지개형상의 홍예문		인천 중 송학	박월주
45	야경이 아름다운 고가차도와 로타리	울산광로2류2호선	울산 남 무거	박맹우
46	월드컵의 꿈이여 영원히(문수로)	울산광로2류4호선	울산 남 무거	박맹우
47	주전 해수욕장 가는 길(주전로)	울산중로2류17호선	울산 동구 동부	이갑영
48	도깨비 길(등억온천 단지도로)	울주군온천단지로	울산 울주 상북 등억	엄창섭
49	벚꽃과 사랑이 피어있는 길	농어촌도203호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엄창섭
50	성스러운 영릉길(영릉로)	농도102호	경기 여주 능서 왕대	박용철
51	아름답고 오래된 교량(구 여주대교)	구국도 37호선	경기 여주 여주 상리	박용철
52	만남과 문화의 거리(나혜석 거리)	수원시도중1-25	경기 수원 팔달 인계	김선명
53	충주사과도로	충주시도대로2-1	충북 충주 달천	이시종
54	청풍호반의 푸른 기운이 하늘을 만나는 다리(옥순대교)	군도20호선	충북 수산 괴곡	임종아
55	풍성한 가을이 있는 감고을 길	영동군도중로2-1	충북 영동 영동	손문주
56	단양(丹陽)을 상징화한 교량	군도 4호선	충북 단양 단양 별곡	이건표
57	당산목(堂山木)과 함께 하는 도로	국지도 40호선	충남 홍성 서부 궁	우종석
58	농촌 들녘 코스모스 길	지방도 611	충남 부여 남 회동	지배현
59	구봉 광산 길	지방도 610	충남 청양 남양 구룡	지배현
60	환경친화적 2단 도로	지방도 635	충남 금산 복수 지량	지배현
61	호수와 철새가 함께 하는 도로	국지도 96호선	충남 서산 부석 창	김택중
62	꽃바람이 부는 도로	국지도 96호선	충남 홍성 장곡 가송	김택중
63	백제의 혼이 숨쉬는 도로	지방도 619	충남 예산 광시 신대	김택중
64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교량(불티교)	공주시도 6호선	충남 공주 금암	김대환
65	서해안 관광 배롱나무 도로	서천군도 5호선	충남 서천 종천 담정	강성진
66	호수와 도로(용담댐 순환도로)	지방도 795호선	전북 진안 용담 월계	김태완
67	전망대와 언덕길(옥정호 순환도로)	지방도 749호선	전북 임실 운암 입석	김태완
68	바람이 부는 도로(연안도로)	군산시도 143호선	전북 군산 구암	양종호
69	지중화 도로(중앙로)	익산시도 24호선	전북 익산 중앙동	양경수
70	우리가락 숨쉬는 동편제거리(관광로)	남원시도 21호선	전북 남원 노암	박준기
71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원평 금산로)	지방도 712호선	전북 김제 금산 원평	이명준
72	자연경관과 조화된 내도교	무주군도 5호선	전북 무주 무주 내도	이재진
73	바다가 보이는 길(해안도로)	농어촌도 103호	전북 부안 변산	오규정
74	울릉도 일주도로	지방도 926	경북 울릉	이홍중
75	해안절경이 일품인 도로	국지도 20호선	경북 영덕 영덕 창포	권오화
76	조형물과 야경의 어울림	국도 4호선	경북 김천 모암	김병기
77	도심속 폭포와의 조화	국도 3호선	경북 김천 황금	김병기
78	공원과 예술의 사랑	김천시도	경북 김천 신음	김병기
79	동진대교가 있는 해안도로	국지도 67호선	경남 고성 양촌	김중섭
80	통영대교 야경(夜景)	국지도 67호선	경남 통영 미수	허종덕
81	사계절 꽃과 푸르름 조성, 정원같은 아름다운 도로(일주도로)	국도 12호선	제주 서귀포 대륜	홍복남
82	바다와 함께 있는 길(애월~하귀)	북제주군도 22호	제주 북제주 애월	양창수
83	자연을 품은 고속도로	고속국도 35호선	경기 광주 중부	윤형원
84	단양 제9경 단양대교(높이 103m)	고속국도 55호선	충북 단양 단성	안 민
85	노을위로 피는 꽃(영종대교)	고속국도 130호선	인천 서 경서	노명일
86	서울의 수문장 낙락장송 우뚝 선 길	고속국도 130호선	경기 김포	박노빈
87	해송 물결 넘실대는 공항신도시나들목	고속국도 130호선	인천 중구 운서동	박노빈
88	알록달록, 물감으로 수놓은 길	고속국도 130호선	인천 서 검암	김영길
89	밤 풍경이 아름다운 다리(소양2교)	국도 5호선	강원 춘천 호반	박계병
90	주변환경을 고려한 교량(동부교)	원주시 대로 1-13	강원 원주 관설	장호성

제1회 「아름다운 도로」 수상지

에필로그
책을 마치며

인간과 함께 살아 숨쉬는 길, 그런 '아름다운 도로'를 꿈꾸며…

문득,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우리의 산하를 감싸 안은 도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류문명의 시작과 더불어 도로는 분명히 문명의 동반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또한 인류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도로가 교통망의 중추로서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물량확대 위주의 정책으로 미관이나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편리성 등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 경제적 발전상에 걸맞게 친환경적이면서 기능적인 도로건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특색있는 도로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도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도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아름다운 도로』 선정 행사 역시 이러한 취지를 살리고 '도로에 생명력을 불어넣자, 그리하여 우리에게 친근한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고 가꾸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첫 회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아름다운 도로』 선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 12월 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과장 조수원

심사위원 명단

위 원 장 남인희(건설교통부 도로국장)
부위원장 조수원(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과장)
위 원 김일평(건설교통부 도로구조물과장) / 이용재(중앙대학교 교수) / 류재영(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연복(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남동익(대한건설협회 부회장) / 조건창(한국도로교통협회 부회장)
이화득(여행가) / 이광민(사진작가) / 신부용(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기획 · 편집

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과 조수원, 정원만, 신민수, 김영한
국토연구원 류재영

자료 협조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제 호 : 아름다운 도로(제1회 아름다운 도로 선정 작품집)
발행일 : 2002년 12월
발행인 : 임 인 택
발행처 : 건설교통부
담당부서 : 건설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02-504-9075~6(doro88@moct.go.kr)
디자인 · 인 쇄 : 대양프리컴 (02-2263-0280)